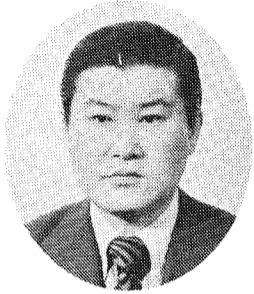


만·성·간·장·병·특·집

간경변증의 개요

B형 간염바이러스 외에 결핵·혈압·변비약 등도 간경변증 유발 가능



김 정 룡
(서울의대 내과 교수)

상을 심하게 입고 나면 흉터가 생겨 정상피부가 될 수 없듯이 간에도 흉터가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성활동성간염이라고 진단된 환자중에도 상당수는 이미 간경변증의 소견이 함께 있는 것을 간조직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B형 간염바이러스는 매우 생명력이 끈질겨서 웬만한 온도나 습도에서도 살아 견디고 화학물질로도 잘 죽지 않는다. 영하 20℃에서도 15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실온에서 6개월간, 그리고 60℃에서는 4시간이나 유지된다.

그러나 뜨거운 열에는 견디지 못하여 100℃의 물에 10분만 끓이면 죽어 없어진다. 따라서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된 기구나 식기, 내의 등은 끓임으로써 간단히 바이러스를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예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구르타르 알데하이드 희석액에는 파괴되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이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콜에 의해서도 간경변증이 초래

도와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술환 바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간경변증에 이환될 경우 그 증세는 개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진찰을 하거나 조직 검사로 진단된 경변증환자라도 간기능 검사에 이상소견도 없이 원기왕성하게 지내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만성간염과 비슷하다. 쉽게 피곤하다든지 허약감이 들거나 구역질이나 식욕감퇴, 또는 헛

의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되게 되어 이른바 문맥압의 상승을 일으키는 데 기인한다. 지하공사로 큰 길이 막히면 차가 밀리듯이 간의로의 혈류가 원활치 않으면 간으로 들어가는 정맥, 즉 문정맥에 피가 몰려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비장이 커지게 되어 왼쪽 늑골 밑에서 만져지기도 하며 복수가 차서 배가 부르기도 한다. 다리에 부종이 함께 오는 수도 많다. 또한 큰 길이 막히면 피

러한 잠재성간경변증은 4명의 환자 중 1명 꼴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간의 능력은 포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어도 정상기능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간경변증의 진단을 위해서 복부를 만지거나 여러 가지 검사에 의하여도 간 형태의 변화를 알 수 있지만 복강경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히 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복강경의 방법은 여자들이

초기증상은 만성간염과 비슷

배가 부르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등 소화불량같은 증상이 흔히 나타나며, 오줌이 진해지고 황달이 나타나기도 한다. 잇몸에서의 출혈이나 코피가 쉽게 나고 성욕이 감퇴되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월경이 없어지기도 한다. 얼굴이 흑갈색으로 거칠어진다든지 눈 흰자위에 황달이 나타나거나 주로 뺨에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보일 경우도 있다. 목이나 가슴에는

가 셋길을 통하여 흐르게 되므로 좁은 길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혈관이 터져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혈관이 파열되는 가장 위험한 곳이 식도의 정맥으로서 터지면 피를 토하거나 새까만 피똥을 누게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에서 흡수된 독소인 질소물질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 되어 오줌으로 배설되는데 간경변증

하는 배꼽수술과 마찬가지로 좁은 개구부로 짧은 시간내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위하여 개복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치명적인 병인 줄 알고 울고불고 야단법석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생전에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천수를 다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부검에 의하여 간경변증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경변증이라고 모두 황달이 나타나고 피곤하여 정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간경변증 환자의 25% 정도는 전혀 간기능의 이상이나 간부전의 증상이 없이 잠재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간경변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간세포의 파괴가 심하여 간부전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생길 때에 국한된다고 하겠다. 간경변증이라도 간의 기능은 포용력이 많아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더 자극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평소에도 많이 하던 술을 끊는다든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과로를 피하며 쓸데없는 약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간경변증 때에는 정상인보다 간의 기능의 여유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양의 자극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생에 무리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간경변증이란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세포의 파괴와 염증세포의 침윤외에 두꺼운 섬유질이 형성될 뿐 아니라 나머지 살아 있는 간세포들이 재생하여 결절을 만들기 때문에 간의 정상적인 구조는 소실되고 간의 형태도 일그러지고 굳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간의 표면은 마치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해지며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간경변증은 서구 여러나라의 경우 알콜에 의한 소결절성간경변이 많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적 감염에 의한 피사후성간경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경변의 원인으로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 열에는 견디지 못해

바이러스 처치하려면 끓이거나 구르타르 알데하이드 희석액 사용 간손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 마신 알콜의 절대량과 기간 중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이외에도 일부의 결핵약이나 혈압약, 변비약 등도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 있고 Wilson씨병 같은 선천성 대사질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알콜이나 약물등에 의해 간경변증이 생겼을 경우 투약이나 음주를 중단하더라도 간경변 이전의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간염인 경우에는 간의 염증이 소멸되면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지만 간경변증은 일단 흉터와 같은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형태학적으로는 원래대로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간경변증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피부에 화

될 수 있는데 알콜이 간손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신 알콜의 절대량과 마신 기간이다. 많은 양의 술을 장기간 마실수록 그만큼 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통계를 보면 하루 160g 정도의 알콜(위스키 2/3병의 양에 해당)을 계속 10년 마시면 그중 25%에서는 간경변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알콜성간경변증 환자의 약 20%에서만 음주의 과거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알콜을 상용하는 모든 사람이 간경변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개인에 따른 유전적 차이나 체질의 차이가 알콜에 의한 간손상의

거미줄 모양의 혈관증이 생기고 겨드랑이의 털이 빠지거나 남자의 젖이 여성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며 고환이 위축되기도 한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혈관이 확장되어 벌겍게 보이거나 치질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간경변증이 더욱 진행되면 간세포기능장애와 문맥압상승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간세포기능장애는 앞서 말한 증상이 지속하거나 더욱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합병증이 생겨서야 비로소 간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수도 많다. 합병증은 간

의 말기에는 간에서 처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간을 통과하지 않고 셋길로 빠져 전신혈액 속으로 들어가 이른바 간성혼수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간경변증의 말기증상은 복수나 식도정맥류파열에 의한 출혈 및 간성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환자에서는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간경변증환자라고 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간경변증이라도 전혀 간기능의 이상이 없고 스태미너도 왕성한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이